광주시, 우수인재 채용 기업 지원

7년 이내 창업기업 연 3500만원···2년 이상 경력자 최대 600만원 타 지역 인재 체재비도 월 최대 50만원····4일부터 참여 기업 모집

광주시가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지역기업에 인 건비와 타 지역 인재 정착비 지원 등에 나선다.

광주시는 3일 "지역 창업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수인재 채용 및 우수경력자 인건비 지원사 업을 마련하고, 4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7년 이내 창업 기업이며, 우수 인재를 채용하거나 현재 창업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를 유지하고 있는 우수경력자가 있으면 시청하스 이다.

우수인재 인건비 지원 기준은 지난 1월 1일부터 사업 신청 때까지 관련 기업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석사 3년 이상이거나 박사 1년 이상 학위 소지자를 채용했거나 채용을 확약했을 시 연 봉의 70%, 연간 최대 3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또 다른 지역 우수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 록 월 최대 50만원 이내의 체재비를 지원하고, 창 업기업이 우수 인재 채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 록 도울 예정이다.

광주시는 우수경력자도 지원하는데, 창업기업에서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직원의 1인당 연봉 상승분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다만 부도, 채무불이행, 법정관리, 화의 등 의 기업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기 업, 자본잠식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광주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및 인재 역량, 사업수행능력 등 종합적으

로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4일부터 22일까지다. 기업별 지 원 인원 규모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

지사항 또는 (재)광주테크노파크 누리집 정보마

당(gjtp.or.kr)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기술인재 확보 와 고용유지는 창업기업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지역 내 많은 창업기업 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창업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술인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인재 유출을 방지해 기업 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겠

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안전광주 함께 만들어요"

광주시는 최근 상무지구 5·18기념공원 앞 교차로에서 '안전실천! 안전광주!'를 주제로 민관 합동 안전문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광주 화재 '봄'에 최다…선제적 화재예방 나선다

광주소방, 취약시설 안전관리 등

광주시소방안전본부가 화재 최다 발생 계절인 봄철(3~5월)을 맞아 안전환경 조성과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3일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9~2023년) 광주지역 봄철(3~5월) 화재는 1129건(28.5%)으로 사계절 중 가장 많았으며, 여름 989건(25.0%), 가을 924건(23.3%), 겨울 920건(23.2%) 순이었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665건, 58.9%), 전기 적 요인(204건, 18.1%)이 전체 봄철 화재의 77% 를 차지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올 봄 시즌에는 화재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축제 및 행사장 맞춤 형 예방대책, 재난대응태세 확립 등으로 선제적인 화재예방 환경을 구축한다.

특히 건설현장에 대해 임시소방시설 설치 지도, 현장 행정지도, 관계기관 합동조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고시원, 주거용 비닐하우스, 물류창고 등 화 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로 피난·소방시 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다중밀집이 예상되는 날에는 행사장에서 행정지도와 소방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화재예방 캠

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관할 소방서와 합동 훈련을 통해 재난상황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바로 세우기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아파트 화재 발생 시 피난행동요령과 피난시설 사용방법을 사전에 숙 지할 수 있도록 하고, 피난환경 등도 점검해 안전 한 주거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김영일 광주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장은 "봄 철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빈틈 없는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개학기 앞두고 현수막 등 단속

광주시는 "개학기를 맞아 오는 29일까지 불법광 고물을 집중 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 문 300m 이내)과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경 계선 200m 이내) 주변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 회에다

중점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 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등 불법유동 광고물 ▲동별 2개 이하 설치개수 위반 및 설치기 준 위반한 정당현수막 ▲학생들이 통학 시 위험할 수 있는 추락 위험 간판 등이다.

특히 학교 담장 울타리 등에 많이 설치된 학교 행정 안내 공공현수막과 학교폭력추방 등 공익 문 구를 포함한 사설 불법광고물 등이 중점 단속 대상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과 불법광고물로부터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3고 악재' 장기화 중소기업 돕는다

광주시 '매출채권보험' 기업당 최대 300만원…이달부터 신청

광주시가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악재'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지역 중소기업이 외상거래로 인한 자금난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확보를 위해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3일 바려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 또는 용역을 외상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실금의 일부를 보상해 연쇄 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공적보험제도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한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 등 매출채권보험 보험계약 대상 업종 기업이며, 기본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준다. 광주시는 할인된 매출채권보 험료에서 50%, 기업당 최대 연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신한은행이 20% 추가 지원해 기업은 최대 70%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 기간은 이달부터이며, 신용보증기금 광주신용보험센터(062-607-9261)로 하면 된다. 홍나순 광주시 창업진흥과장은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으로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안정

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복지시설에 안전 농산물 지원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서부·각화농(수)산물검사소 임직원들이 북구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안전 농산물을 지원하고 있다.

2900여 상자 10곳 전달 계획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서부·각화농(수)산물검 사소는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1년간 안전한 농산 물을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5개 자치구의 추천으로 선정한 북구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10곳이다. 서부·각화농(수)산물검사소는 올해 광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3000여 건에 대

해 주·야간 상시검사를 실시하고, 잔류농약 허용 기준에 적합한 안전 농산물 2900여 상자(4000만 원 상당)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2011년 서부농수산물검 사소가 설치된 이후 매년 1500여 상자의 농산물을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있다. 2020 년 각화농산물검사소가 추가 개소하면서 농산물 무상 지원 물량도 2배로 확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